"항공선진국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쾌거"

이 자리를 빛내주신 장영달 국방위원장님, 임내규 산자부 차관님, 美 국방부 안보협력본부장 월터스(Walters) 공군 중장,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나라 항공우주 기술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길형보 사장님을 비롯한 한국항공 임직원, 친애하는 김대욱 공군총장과 박용득 국방과학연구소장을 비롯한 軍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의 개발과 비행성공을 축하하는 뜻깊은 식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능과 안전성,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T-50의 개발과 성공적인 비행을 국군 전 장병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온 관계관 여러분들께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 1948년, 미국의 무상원조 항공기인 L-4 연락기 정비에서 출발한 우리 항공산업이 반세기만에 초음속 항공기 개발에 성공한 것은 괄목할만한 놀라운 성과로 항공선진국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쾌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개척자 정신으로 항공산업과 공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T-50의 개발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세계 12위권의 초음속 항공기 개발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고, 항공기 조립생산 단계에서 본격적인 설계개발의 단계로 올라서게 되었으며, T-50 개발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첨단 기술이 우리 과학기술 전반으로 파급되어 국가기술 발전은 물론, 국산전투기 개발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어, 머지않아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우리의 영공을 지키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외귀빈, 그리고 한국항공 임직원과 군 관계자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고 싶어했던 오랜 인류의 꿈을 실현한 이후, 항공선진국들은 제트엔진과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하고, 우주를 탐사하며 그 꿈을 무한대로 확장해 왔습니다.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종합업체인 한국항공은 '99년 통합법인으로 출범한 후,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매출 세계 20위권의 항공기 생산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세계 10위권 진입과 첨단 국산전투기 개발의 원대한 목표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이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KT-1 기본훈련기 양산체제 구축과 해외수출에 이어, 이번에 T-50 개발과 비행에 성공한 것은 자주 국방력 발전의 이정표를 세우는 커다란 성과로 평가됩니다.

군은 지금, '정보화 · 과학화된 첨단 미래군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 건설에는 많은 예산과 노력, 첨단 기술이 필요한 만큼, 내외귀빈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첨단 미래산업의 주역으로 항공우주산업과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한국항공이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여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위풍당당하고 자랑스러운 T-50이 우리의 영공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하늘을 비상하며, 대한의 명성을 날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30일
국방부장관 이준